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구갑문 배경에 무병장수 기원”

#### 원력수생 해동불일 보조국사 진영

전남 순천 송광사(松廣寺)에는 불교사(佛敎史)를 빛낸 보물 제 1043호로 지정된 십육조사진영(十六祖師眞影)의 진영이 있다. 이 고승들의 진영은 가로 77.4cm, 세로 134.8cm로 제작기법이나 크기가 같아서 어떤 한 금어(金魚, 승려 불화승)스님의 작품들로 보여진다.

이들 중 특히 보조국사의 진영은 녹색 장삼에 붉은 가사를 입고, 오른 손에 길고 가는 석장(錫杖)을 쥐고, 날카로운 선기(禪氣)를 지닌 눈매로 전면(前面)을 바라보고 있다. 이 16점의 진영(眞影)들은 모두 정조(正祖) 4년(1780년)에 안치되었다고 전한다. 모두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조선중기의 고승영정들의 기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보물들이다.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에도 역시 보조국사 지눌(知訥)스님의 영정이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한 동안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53호로 지정되어



동화사성보박물관 보조국사 진영

판목(板木)의 넓은 부분에만 대충 목단문(牧丹紋)이 묘사되어 있는 것에 비해 동화사 영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모란문이 판목전체를 짙게 채운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의자가 특별히 보조국사를 위해 만들어진 의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하단에 다시 당초화문(唐草花紋)으로 정교함을 더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문양은 앞아래 등쪽의 판목에는 구갑문(龜甲紋)을 넣었다.

그렇다면 왜 구갑문을 넣었을까? 여가에서 의자를 만든 장인이 보조국사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보조국사 주변의 사람들이 보조국사계서 오래 오래 사서서 불일(佛日)을 증휘(增輝)하기를 바라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조국사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고 병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약을 썼으나 낫지 않아, 부친은 부처님 전에 기도했다. “병만 나으면 자식을 부처님께 바치겠사오니 제발 병만 낫게 해주소서” 라고 말이다. 이후 국사의 병이 깨끗이 낫자 겨우 여덟 살에 종휘(宗暉)선사에게 출가하신 분이 바로 목우사(牧牛師) 지눌 스님인 것이다.

애소한 모습의 보조 국사계서 커다란 나전칠기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의 배경 구갑문에서 스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빌었던 제자들과 불자들의 간곡한 기원(祈願)을 본다.

우리나라의 다른 영정들이나 고승진영들을 찾아봐도 나전칠기의자에 앉은 분은 보조국사가 거의 유일하다. 송광사 영정의 나전칠기 의자가 오로지 의자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50년 양공 수행 가사에 펼쳐져”

지상 스님 가사 모음전 5월 16일부터

9품계 흥가사 등 30여 점 전시

50년 동안 가사 불사에 매진해온 지상 스님(전통가사연구위원)이 전통 가사 모음전을 펼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6일-21일 종로구 관훈동 이경아트갤러리전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태고종의 흥가사 등 30여 점의 선을 보인다.

지상 스님은 자신이 소속된 태고종을 비롯한 수많은 가사를 제작해 왔다. 특히 스님은 가사의 통문을 유지하기 위해 재봉틀에 의뢰하지 않고 손바느질 제작만 고집해온 장인정신의 소유자다. 스님은 “1962년 11세 때 김을용 스님의 제자로 출가해 출가하여 전통가사의 제작 기법을 9년간 사사하여 양공(良工·가사를 제작하는 스님)이 되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교리 사상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 불교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우위에 있음을 단언할 수 있다”고 전한다.



50여년 동안 손바느질로 가사를 만들어 온 지상 스님이 5월 16일부터 전시회를 연다. 사진은 삼보를 자수로 놓아 만든 흥가사

스님 작품의 특징은 통문을 유지하기 위해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 손바느



50여년 동안 손바느질로 가사를 만들어 온 지상 스님이 5월 16일부터 전시회를 연다. 사진은 삼보를 자수로 놓아 만든 흥가사

행태로 제작했다. 이후 가사는 발우와 함께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범백상속의 신표로서 승가의 전통적 상징물이 되었다. 지상 스님은 “작은 혈연에도 개인 고유의 DNA가 들어 있듯, 전통가사인 흥가사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유감없이 들어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교리 사상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 불교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우위에 있음을 단언할 수 있다”고 전한다.

스님 “이번 전시에서는 가사의 9품계(9조, 11조, 13조, 15조, 17조, 19조, 21조, 23조, 25조) 대의(大衣)를 비롯해서 마니가사, 5조(안타회), 7조(울타리)의 중·하의(中·下衣) 등을 종류별 제작하였다. 또한 색상과 소재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시한다. 또한 전시 기간에는 가사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니 관심 있는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오셔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2)736-480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젊은이와 소통하는 헤민 스님 광고 ‘화제’

광고로 전액 4천만원 ‘동행’ 보시 6월 포교원과 마음치유 콘서트

3월의 불날 전담 담양의 고즈넉한 대나무밭을 걸어가 한 승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어떤 문명의 힘도 닿을 거 같지 않은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호탕하게 웃는 스님의 모습은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다. LG U+ LTE광고의 주인공은 바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젊은층과의 소통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헤민 스님이다.

스님은 지난 3월 30일 광고비 전액인 4천만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고즈넉한 산 속에 앉아 수행을 해야 할 거 같은 스님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온 이유는 뭘까? 스님이 광고를 찍게 된 배경과 그 과정 앞으로 스님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왔다.

헤민 스님은 처음 광고 제의를 거절했지만 주변의 설득 끝에 전액 기부를 목적으로 광고를 촬영하게 됐다고 한다. “출판사 측에서 광고 에이전시(엘비스트)에서 출연

제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다. 승려가 무슨 광고에 나가냐고 단번에 거절 했죠. 하지만 스님의 책을 펴낸 출판사 쪽으로 (광고 에이전시)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 달라는 연락을 해 온 모양입니다. 어차피 제가 나가지 않으면 스님처럼 분장을 한 배우를 기용하게 되는데 스님이 나가서 제대로 출연료 받고 또 그 금액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면 좋은 일 아니겠냐고 설득을 하더군요”

결국 스님은 기부라고 하는 보시행에 마음이 가벼워졌고 광고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광고를 제작한 엘비스트 신혁 차장은 “이번 광고는 깊은 산 속 대나무 숲에서 LTE를 즐기는 스님의 모습을 통해 유티커의 앞선 LTE네트워크를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고차했다”며 “트위터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헤민 스님이 출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해 스님을 섭외하게 됐다”며 기획의도를 전했다.

연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스님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SNS로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런



헤민 스님은 LG U+ LTE 광고에 출연해 젊은이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광고로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니 감동이 오케이 싸인을 빨리 내려줘 촬영이 예정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다”며 뒷이야기를 전한다.

엘비스트 신혁 차장은 “스님으로서 드문 TV광고 촬영이라 촬영 전 제작진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본 촬영에서는 전문 모델 못지않은 자연스러운 연기와 애드립 등 탁월한 현장 적응력을 보여줘 역시 신세대와 교감하는 헤민 스님의 젊은 감각을 엿볼 수 있었던 촬영”이었다며 현장 얘기를 전했다.

요즘 인생잡란을 담은 헤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쌤앤파크스 )은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SNS로 꾸

준히 대중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과 소통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무언가 큰 진리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포교죠”

스님은 6월과 7월에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마음 치유 콘서트를 개최 전국 대도시를 순회한다. 스님은 “대중들을 직접 뵙는 시간인 만큼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성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http://www.shcandle.com)
자연을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제품 흑룡초**

임진년은 흑룡의 해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하십시오

크기 7.5 × 29cm

**강화사지밭약속양초**

① 약썩초 90cm	② 약썩초 연봉 환기초	③ 약썩초 돈타래
④ 약썩초 밀대	⑤ 약썩초 1호	⑥ 약썩초 2호
⑦ 약썩초 3호	⑧ 약썩초 4호	⑨ 약썩초 4호 반야심경
⑩ 약썩초 3호 반야심경	⑪ 약썩초 2호 반야심경	⑫ 약썩초 1호 반야심경
⑬ 약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뽕)	⑮ 약썩초 연봉 환기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뽕)

**한방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② 밀납초 연봉 환기초	③ 밀납초 돈타래
④ 밀납초 밀대	⑤ 밀납초 1호	⑥ 밀납초 2호
⑦ 밀납초 3호	⑧ 밀납초 4호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뽕)	⑮ 밀납초 연봉 환기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 - 삼환양초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산화제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 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